

민주, 시도당위원장·지방선거 권리당원 표 비중 높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등이 1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 피케팅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광주 DJ센터서 '당원과 함께' 호남 콘퍼런스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 합이 추대 관행 변화... 지역정가 민감 반응 지도부가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도 영향력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이후 선출된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거와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반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어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의미가 강한 호남 시도당위원장마저 '이재명계'가 장악한다면 지난 총선에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정치가 대선 준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2년 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현역 의원, 당선인 다수와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의 당원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에게 있어서 당원과 괴리가 있는 듯하다'는 질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고심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당을 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 공천에 해당 지역 당원, 주민, 주권자들이 실제 참여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신나게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60대 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당대표·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내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이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권리당원 수가 시도당마다 차이가 있어 천차만별이다"며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몇 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안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최고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시도당위원장이 협의에 의해 (후보들) 선정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 후보 선정 과정의 변화도 시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선은 광역단체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기초위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크다"며 "당 내부적으로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며, 일단은 시도당위원장을 최대한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관례상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합이 추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향후 선출될 광주시장 위원장의 경우 '천명'계 원의 인사가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더욱 이 대표의 발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적 체제의 나라 중에서 당원이 제일 많은 당이 우리 당이다.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그게 이번 의정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공화국 가치를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첫 길을 열고 있다"며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미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이라 저희가 1순위로 처리할 목표를 가지는 법안"이라고 말했고, 지방소멸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방식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직무 평가 22개월 연속 1위

리얼미터 조사, 긍정 65.9% 국립 의대 등 현안 힘 실릴 듯



(67.5%)에서 다소 하락했으나 1위 자리는 유지했다. 2위는 김동연 경기지사(65.6%)로 지난 3월(59.1%)에서 크게 올랐다.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62.8%), 4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9.3%), 5위는 김진태 강원지사(54.3%)가 차지했다.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2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김 지사에 대한 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국립 의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등 지역 현안을 김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순천시·순천대가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참여하는 '공정한 공모를 통한 선정'이라는 김 지사와 전남도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2024년 4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5.9%로 가장 높았다. 지난 3월

철우 경북지사(59.3%), 5위는 김진태 강원지사(54.3%)가 차지했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이후 연속 1위를 지켰다. 앞서 민선 7기 때도 지방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43개월 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0차례에 걸쳐 선두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28-30일, 4월26일-5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힘 황우여 "5·18 포함해 포괄적 개헌" 민주당 이재명 "5·18 수록 원포인트 개헌"

여야 '5·18 개헌' 시각차

여야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 개정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5·18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념사에서 그 자체를 또 언급하는 것은 아마 불필요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대선 때 맹목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